한 달 간의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다.

이 여행이 끝날 때까지 나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여유'를 놓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나는 더 많은 것을 채워야겠다. 그리고 그 여유는 나를 성장하게 만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으면 좋겠고, 지금 이 순간이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는 오늘도 글을 쓴다. 글을 쓰는 이유도 그렇다.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도록,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한다. 내 글쓰기는 나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나는 글을 쓰고 있다. 글을 쓰면서 나는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더 많이 느끼고 싶었다. 글을 쓰기 위해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나를 좋아하는 이유 때문이었다. 글을 써도 되는 이유, 나는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글을 쓰며 나는 나의 감정을 채웠다. 나는 나에게 많은 것들을 채우고 싶었고, 나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채워나가기 위해 노력을 했다. 글을 써서 글을 완성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글 쓰는 이유는 내가 쓴 글을 보고 싶기 때문이다. 나는 글쓰기 모임을 통해 글을 쓰고, 글을 통해 나를 채우고, 글을 통해서 나를 채워나갔다. 그렇게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글을 썼다.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글쓰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글을 쓴다는 건, 내가 그걸 채우면 되는 거라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다. 내 글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에 나는 계속 글을 썼고, 그 글들을 써보려고 노력했고, 그 글을 읽으며 나는 점점 그 욕심을 채워갔다. 그 욕망을 채우면서 나는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 문득,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욕망을 채우면서 나는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욕망을 채울 수록 여행에서의 여유는 커져 갔다.

여행을 떠나기 전 나는 '여유'를 원했다.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여행은 나를 성장하게 해 주었고 나의 욕망은 채워졌다. 나는 여유가 필요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난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여행을 좋아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좋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여행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 취향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행이 좋았다. 그래서 나는 여행에 대한 로망이 생겼다. 그 이유는 바로 '여행' 때문이었다. 나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기억한다. 그 순간을 즐기기 위해 나는 많은 곳을 다녔다. 그중에서도 한 달 살기 같은 숙소도 선택했다.

나는 그 선택에 만족했다. 하지만 나는 한 달을 살기 좋은 숙소를 선택하지 못했다. 그때는 내가 원하는 숙소가 어디인지 몰라서 무작정 선택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 숙소에 머물지 않았다. 그 후로 나는 다른 숙소로 이동했다. 그곳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었다. 그 여행에서 나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다. 그 순간만큼은 그 여행을 사랑했다. 그렇게 나는 나에게 여행이라는 선물을 주었다. 그 선물은 나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었다. 나는 선물을 받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아보았다. 그 선물에는 내가 원했던 것들이 담겨 있었다. 그건 바로 나였다.

예전이라면 생각도 못할 일인데.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을 힘들어 했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싶어 여행을 더 자주 다녔다.

그때는 여행을 잘 못 가는 편이었다. 그래서 더 여행을 안 가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내가 여행에 너무 빠져 사는 것이 아닌가.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해야 한다. 새로운 경험은 또 다른 경험을 하는 것이다. 더 많이 더 오래 머물고 더 진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현명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새로운 사람들과 같은 생각이다. 그리고 더 솔직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 더 깊게 솔직할 수 있고,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한다.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더 더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도 그런 바람이 불고 있다.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말이다. 여행은 살아보아야 하는 일이지 않나.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란 걸 알면서도 나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여행을 좋아한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다. 이 순간만큼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게 나의 여행이 아닐까.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여행을 간다. 오늘은 여행의 시작이다. 어제의 내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이 내일의 내가 될 것 같다.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든다. 사실 우리의 모든 하루는 다 여행이지 않은가.

그 여행이 끝나기 전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해야겠다. 오늘도 어김없이 나는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내일은 더 늦기 싫어서. 그리고 그 약속은 지키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기억하고 있다. 그립다. 여행의 끝자락이라 불리는 그 해 여름, 나는 한껏 들떠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내가 떠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떠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했다.